민족료리의 우수성을 과시

제19차 태양절료리축전장을 찾아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제19차 태양절료리축전이 평양면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번 축전은 공화국의 각지에서 선발된 50여개의 단위의 1 400여명이 참가하여 명절료리전시회, 지정료리전시회, 빵전시회, 료리사, 접대원들의 기술경연 및 기교시범출연, 료리과학기술성과자료전시회로 진행되였다.

축전참가자들은 민족의 음식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봉사와 료리기술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련마하여온 료리기술과 접대방법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료리협회 조히국서기장은 축전에 참가한 그 어느 단체에서나 태양절을 맞으며 새롭게 창안완성한 료리들을 내놓았을뿐아니라 쉽게 만들수 있는 대중음식들을 전시한것으로 하여 이번 축전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가깝게 접근한 현실적의의가 큰 료리축전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축전장의 모든곳이 그러하였지만 1층에서 진행된 료리과학기술성과자료전시회에 사람들의 이목이 더욱 쏠리였다. 여기에 출품된 료리기술학습과 봉사, 경영관리를 콤퓨터화한 정형과 가치있는 학위론문, 발명, 료리기술도서와 참고서, 전자도서, 록화편집물 등은 보다 발전되고 문명한 음식문화를 지향하는 전시품들로서 참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층의 료리전시장에서 진행된 명절료리전시회와 지정료리전시회도 날로 발전하는 민족의 료리발전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명절료리전시회에는 고기, 물고기, 남새를 가지고 만든 랭료리와 온료리, 주식, 단음식, 음료 등 자기 단위에서 손꼽히는 명료리들이 전시되였다. 지정료리전시회에는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에서 출품한 갖가지 지정료리들이 전시되였다. 옥류관에서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보이는 평양랭면과 고기쟁반국수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철갑상어료리, 왕개구리료리, 왕새우료리, 자라료리 등 독특한 료리들을 10여가지나 만들어 내놓았으며 청류관에서는 그 맛과 향기로 소문난 신선로를, 칠성각에서는 타조불고기와 타조육개장을 비롯한 10가지의 타조료리들을 내놓아 참관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색이 그대로 살아나는 메돼지료리와 같은 산짐승료리들을 잘 만들어 내놓았고 베개봉국수집의 료리사들은 갖가지 감자음식들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전시하였다.

경흥관전시대의 결혼상과 칠골민속관전시대의 설명절음식들도 참관자들에게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한편 옥류관, 청류관, 평양고려호텔을 비롯한 여러 단위 료리사들의 기교시범출연과 앞수건접기, 과일즙만들기, 커피봉사방법 등을 보여준 접대원들의 기교시범출연도 참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번 축전에는 지난 축전들과는 달리 빵전시회가 처음으로 진행되여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3층에서 진행된 빵전시회에는 여러 식료공장들에서 생산한 효모빵, 식빵, 단빵 등 1 000여가지나 되는 빵들이 출품되였는데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마치 빵공장을 방불케 하였다.

축전장을 참관한 중국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 김순옥회장은 료리축전장을 돌아보니 정말 대단하다,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음식문화와 전통을 한눈에 보는것만 같다, 조선료리가 이처럼 훌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의 민족료리를 온 세상에 대고 자랑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제19차 태양절료리축전은 민족의 음식문화와 료리의 우수성을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서 민족적전통을 더 활짝 꽃피우는데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최 태 성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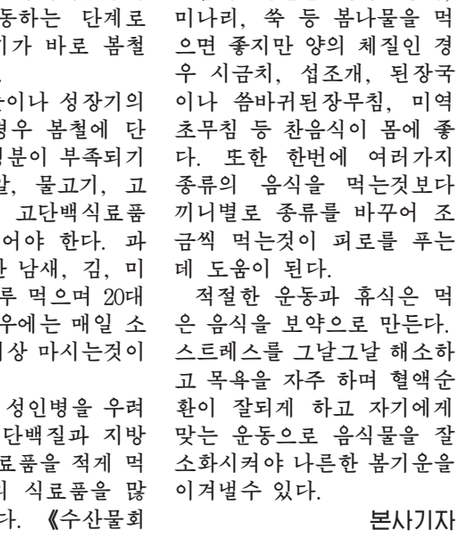
개 국 사 돌 등

꽃들이 다투어 피여나고 록음이 짙어가는 지난 일요일 민속공원을 찾은 우리는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실장 류충성으로부터 고려시기 유적들중의 하나인 개국사돌등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개국사는 935년에 세운 사찰로서 고려시기 10대사찰의 하나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여기 민속공원에 있는 개국사돌등은 개성시 덕암리 개국사터에 있던 고려초기의 돌등과 꼭같이 만들어놓은것이라고 한다.

개국사돌등은 높이가 3.72m로서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돌등가운데서 비교적 큰것들중의 하나이다. 화강석으로 만든 개국사돌등은 받침대와 기둥돌, 불집돌과 등머리로 이루어져있으며 기본요소들은 모두 평면이 4각형이다. 받침대 한변의 너비는 1.92m이고 그 옆면들마다에는 오목이가 4개씩 새겨졌으며 그 웃면에는 12잎의 엎어놓은 모양의 련꽃이 새겨져있다.

길다란 기둥돌의 평면은 4각형이지만 네 모서리를 심하게 다듬어 8각형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이 돌등의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기둥돌의 아래, 우에는 턱을 지어놓아 목조건물의 주추돌과 주두(기둥머리)처럼 보이게 하였다. 기둥돌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1.56m인 불집대돌이 놓였으며 밑면에는 받침대 웃면에 새긴 련꽃무늬와는 반대로 꽃잎이 16개이고 끌이 뾰족하며 홑잎의 꽃잎안에 또 다른 꽃잎새김이 있는 활짝 피여오르는 모양의 련꽃이 두렵게 새겨져있다. 불집대돌 웃면의 네 모서리에 기둥이 하나씩 세워져있고 그 우에 네모지붕돌이 놓인 불집돌은 사방이 틔여져있으며 복판에 불을 피우는 불자리가 마련되여있다. 넓고 낮은편인 지붕돌의 처마밑선은 곧고 웃선은 량쪽으로 가볍게 우로 휘였으며 지붕면과 추녀선도 밑으로 휘여 지붕돌이 퍽 경쾌해 보인다. 등머리에는 등근 보주 한개가 놓여있다.



개국사돌등은 규모에 어울리게 치레가 간소하고 대범하여 웅장한 느낌을 준다.

원래의것은 고려박물관에 보존되여있다고 한다.

우리는 개국사돌등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고려초기 우리민족의 뛰여난 돌건축술과 그 발전면모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본사기자 고 영 숙

민족의 향기 넘치는 조선옷점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나는 봄계절에 들어선 요즘 각지의 조선옷점들은 민족의상을 주문하는 사람들로 붐비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칠골조선옷점을 찾았다. 이곳 조선옷점은 녀성들의 기호와 몸매, 미감에 꼭 맞게 조선치마저고리를 잘 만드는것으로 하여 널리 소문이 났다. 갖가지 장식기법들로 훌륭하게 만든 결혼식옷과 명절옷들이 가득한 진렬대, 화려하고 우아한 민족옷들을 지어가는 재봉공들…

이들에 대한 자랑을 더해주듯 여러명의 녀성들이 옷점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짚는다는 처녀들과 결혼식옷을 맡기러온 녀성들이였다. 그런가하면 한켠에서는 주문했던 반회장저고리를 찾으려온 녀성들이 저마다 새로 만든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어보고있었다.

《옷이 날개라더니 살구꽃무늬를 새긴 치마저고리를 입으니 너의 모습이 더욱 환해보이는구나.》

《이렇게 꼭 맞는 조선옷을 해입으니 한결 젊어진것 같애요. 정말 이 조선옷점은 소문이 날만 해요.》

…

이곳에서 만든 조선치마저고리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어깨너머로 곧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한 처녀가 진분홍색바탕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기뻐하는 모습이 안겨왔다. 거울앞에서 자기 모습을 이리 저리 살피며 기뻐하는 그의 얼굴은 진분홍저고리에 어울려 더 곱게 보였다.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 조선옷점의 서혜순책임자는 우리들의 손으로 지은 화려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기뻐하는 녀성들을 볼때면 조선옷을 만드는 남다른 긍지를 느끼군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눈길은 지난해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당선되였다는 치마저고리앞에 멎었다. 간결하면서도 밝고 선명한 느낌을 주는 독특한 색배합, 세련되고 섬세한 바느질, 한껏 기울인 정성이 한눈에 안겨왔다.

조선옷을 입어보며 기뻐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혜순책임자는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선치마저고리는 단순한 민족옷이 아니라 주체성과 민족성이 활짝 꽃펴나는 사회주의 내 나라에 대한 자랑과 긍지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뜸의 바느질에도 정성을 고이고 꽃 하나를 수놓아도 온갖 지성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민족의 자랑인 조선옷을 더 훌륭히 만들어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녀성들을 더 밝고 환하게 내세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선치마저고리는 세계에 둘도 없는 고상한 민족옷이라고, 조선녀성들의 치마저고리는 정말 우아하고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평양을 비롯한 여러곳에 민족의상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옷점을 꾸려놓고 조선치마저고리를 전통적인 풍습과 녀성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게 만들어 녀성들이 즐겨입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되새겨졌다.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여가려는 이런 뜨거운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있어 밝고 부드러운 여러가지 색갈의 치마저고리들이 더욱 아름답게 안겨왔다. 민족의 독특한 향기와 더불어 문명한 생활을 더욱 마음껏 향유하게 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박 원 평

천일기념식 진행

천도교창도 154돐 천일기념식이 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기념식에는 윤정호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지도위원회 일군들, 평양시안의 천도교인들이 참가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윤정호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지난 시기 천도교인들이 《광제창생》, 《보국안민》, 《척양척왜》, 《지상천국》의 애국애족리념을 실현하기 위해 피와 땀을 바쳐 적극 노력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최근 공화국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력사를 끌장내고 조선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여러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강조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아량과 선의를 무시하고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함으로써 지금 나라의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북과 남의 천도교인들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천일기념식은 천도교례식에 따라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봄철에 어떤 식료품을 먹어야 하는가

봄이 되면 체내에 윤활유와 같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상태가 휴식기로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봄철이기때문이다.

젊은 녀성들이나 성장기의 청소년들인 경우 봄철에 단백질이나 철성분이 부족되기 쉬우므로 닭알, 물고기, 고기, 두부 등 고단백식료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과일이나 신선한 남새, 김, 미역 등을 골고루 먹으며 20대의 녀성인 경우에는 매일 소젖을 한고뿌이상 마시는것이 좋다.

비만증이나 성인병을 우려하는 사람은 단백질과 지방질이 많은 식료품을 적게 먹고 남새위주의 식료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수산물회는 아무리 먹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사람분(150g)이상은 오히려 나쁜 효과를 초래한다.

음의 체질인 경우 냉이, 미나리, 쑥 등 봄나물을 먹으면 좋지만 양의 체질인 경우 시금치, 섭조개, 된장국이나 씀바귀된장무침, 미역초무침 등 찬음식이 몸에 좋다. 또한 한번에 여러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는것보다 끼니별로 종류를 바꾸어 조금씩 먹는것이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은 먹은 음식을 보약으로 만든다. 스트레스를 그날그날 해소하고 목욕을 자주 하며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으로 음식물을 잘 소화시켜야 나른한 봄기운을 이겨낼수 있다.

본사기자

중로년기사람들의 장수비결 7가지

① 대뇌의 활력을 보장해야 한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독서와 독보를 계속하고 그림그리기 등 여러가지 취미를 가져야 한다.

② 손가락을 자주 놀려야 한다.

손가락을 자주 놀리고 두 손을 엇바꾸어쓰면 대뇌좌우반구를 자극할수 있어 지력을 높이는데 좋을뿐아니라 대뇌의 로화도 지연시킬수 있다.

③ 성질이 다른 활동을 엇바꾸어 진행해야 한다.

좀 긴 시간 책을 보았거나 글쓰기를 진행한 후에는 성질이 다른 활동을 하여 뇌신경이 느슨해지게 함으로써 정신이 나게 하여야 한다. 산보나 체조같은것이 비교적 좋은 활동방식으로 된다.

④ 체육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적극적이고도 취미있는 체육활동은 피로를 풀고 신체건강을 촉진할수 있다.

⑤ 잠을 잘 자야 한다.

일과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제때에 자고 제때에 일어나며 매일 8시간의 수면을 보장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

⑥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

흰쌀이나 밀가루, 잡곡을 섞어먹고 비타민과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추, 우유, 콩물, 닭알노란자위, 참깨, 뽕나무열매, 겨자, 호두씨 그리고 남새와 과일을 많이 먹고 동물성지방과 당류가 들어있는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한다.

⑦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악기를 다루어야 한다.

아름다운 선률은 대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기분이 상쾌해지게 한다.

본사기자

꽃병에 생화꽂기

꽃병에 꽂는 꽃은 푸르싱싱하고 아름다울뿐아니라 향기롭고 꽃줄기나 가지들이 길어야 한다.

꽃병에 가지꽃을 꽂을 때에는 꽃병과 꽃의 색, 꽃모양 등이 잘 어울리게 세워꽂거나 드리우게 꽂는것이 좋다.

가지꽃을 세워꽂을 때에는 주로 큰 가지를 가운데 꽂고 그옆으로는 작은 꽃가지를 꽂아야 한다. 이때 꽃병은 그리 크지 않고 아구리가 좁은것이 어울린다.

꽃병에 꽂을 꽃가지의 높이는 꽃병의 키보다 1.3~1.5배 정도 되게 하는것이 좋다.

꽃가지는 한가지 종류로도 할수 있고 두세가지 종류로도 할수 있다.

꽃병에는 꽃만이 아니라 가을이나 겨울, 봄에 열매맺힌 가지나 단풍든 가지, 새움이 트는 가지 2~3개를 꽃과 섞어 꽂을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계절적인 정서를 짙게 풍겨준다.

본사기자

사화

산 당 화 (3)

글 전 철 호

, 그림 김 윤 일

《어서 회고기를 가져오지 못해—》

이제나저제나 왜장놈에게 가까이 접근할 기회만을 노렸던 이쁜은 《예, 가져가나이다.》하고 대답하고는 숭어회가 무둑한 접시를 들고 재빨리 느티나무그늘로 다가갔다.

《아니, 누가 여기까지 오랬어?》

백씨는 병아리를 덮치는 까마귀마냥 어느새 이쁜에게 달려가 빼앗다싶이 접시를 받아들고는 발을 탕 굴렀다.

이쁜은 한숨을 내쉬였다. 백씨는 왜장이 벽란도에 나타날적이면 이렇게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이쁜이는 곁에도 오지 못하게 한다. 놈들의 흉계를 알아내기가 조련치 않았다. 이쁜은 이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다.

며칠이 지나서 점심참이 되였는데 황백치는 사이또와 함께 한무리의 말을 탄 왜군을 뒤에 달고 벽란도에 왔다. 이쁜은 백씨가 하라는 대로 고간에서 소고기를 내여다 숯불에 구워 주안상을 차려냈다.

사이또는 황백치와 함께 안방에 들어가서 술상에 마주 붙었다. 이쁜은 어제 오후에 개성에 간 황백치가 어째서 사이또를 끌고왔을가, 이런 생각으로 부엌을 오락가락하다가 대담하게 알아보자는 궁냥에서 아궁에다 장작불을 지피였다.

좀 있자 요염하게 치장한 백씨가 부엌문을 열고 넝큼 술을 항아리채 내오라고 소리쳤다. 청주가 찰랑대는 백항아리를 받아안은 백씨는 《흥!—》하고 이쁜이에게 코웃음을 치더니 진한 분내를 풍기며 안방으로 사라졌다.

이쁜은 술심부름같은 잔시중을 펑게대고 안방가까이로 들락날락하여서는 도저히 놈들의 기미를 알아차릴수 없음을 안다. 이제 구들이 뜨거워지면 제깐놈들이… 아니나다를가 뒤방문이 벌컥 열리는것이였다.

이쁜은 바람소리도 안나게 부엌뒤문을 열고서 방문뒤에 가붙었다. 그는 만약을 위한 구실감으로 장작 몇개피를 안고있었다. 사이또의 돼지멱을 따는듯 한 소리가 잘 들렸다.

《황상, 어째 좋은 소식이나 안오는가? 〈롱산왕눈깔〉이란 놈이 뒈진것이나 아닌가?》

《아,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말구종이나 변절한것이 아닌가?》

《그럴리가 있겠소이까. 좀만 참으소이다.》

《좀만이나 뭔가. 난 당장 강을 건느자고 병졸들을 달고나온것이다.》

《수일내로 꼭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으니 마음을 좀 놓으소이다.》

《황상이나 똥집이 편안하다. 내가 구로다한테 뒤지는걸 보자고 하는가? 잔말 말고 리정암의 목을 내앞에 당장이나 갖다놓으라.》

《예예, 알겠소이다. 오늘 밤으로 사공령감을 또 보내겠소이다.》

《빨리빨리나 독촉하라.》

이쁜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는듯 몹시 높뛰였다. 금시 황백치놈의 우악한 손아귀가 뒤덜미를 움켜잡는것 같았다.

이쁜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언젠가 여기 벽란나루에서 부엉이눈같은 키다리가 행상군들의 보짐을 털다 붙잡혀 판가에 끌려가게 된걸 황백치가 빼내준 일이 있었다.

개성 룡산동에서 산다고 《룡산왕눈깔》이라고 불리우는 그놈이 그때 진 신세갚음을 나라를 배반하는것으로 갚겠다는것인데 안된다.

《황상, 이 집에 음식솜씨나 대단한 예쁜 녀자가 있다. 내 마음에나 몹시 든다.》

《예예, 것두 다 생각이 있소이다. 마련을 보시도록 해드리겠소이다.》

《으흐흐, 네 떡이나 하나 먹으면 나도 하나쯤은 안다. 에또, 지금은 우리 장수들이 조선의 8도감사들을 겸하고 있지만 명나라를 먹으면 내 감사 한자리를 황상에게 주도록 하겠다. 황상이라고 정승을 못 산다는 법이 있는가?》

《아이구, 황송하오이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헤헤.》

《좋은것이다. 모레 새벽에 나의 군사들이 강을 건너갈수 있도록 만전이나 기하라. 미욱돼지같은 구로다상에게 이 사이또의 주먹솜씨가 어떤줄 보여주어야겠다.》

《예예, 알겠소이다. 알겠소이다.》

이쁜은 《안된다.》를 속으로 부르짖으며 제꺽 개다리소반에 술상을 차려들고 문을 지키는 왜병졸앞에 갔다. 고기 익는 냄새에 군침을 흘리던 키다리왜병졸은

입이 광주리만 해서 덥석 술상을 받아들었다.

《좋은것이!》

이름에 이쁜은 대문을 유유히 빠져나가 논뚝길을 타고 이 집 맞은켠의 려산기슭에 있는 《가래나무집》으로 종종걸음을 다그쳤다. 이 동네에 유일하게 아름드리 가래나무가 뜨락에 서있다고 해서 《가래나무집》이라고 불리우는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사공할아버지가 홀로 산다.

강아지 한마리 얼씬없이 텅 빈 마을인데 마침 사공할아버지가 삿대를 메고 집앞에 나서고있었다. …

이쁜은 년놈들이 딩구는 안방을 예리하게 주시하다가 나는듯이 불밝은 창가에 다가불었다.

마침 저 하늘도 돕는다. 사위는 그믐처럼 칠칠야밤이다. 강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와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도 방안에서 딩구는 년놈들은 가려듣지 못할것이다.

초불이 환한 안방에서 년놈들의 란잡한 행실이 잠시 멎었는지 백씨의 굵은 목소리가 새나왔다.

《여보, 그새 왜 끔쩍 안했어? 그럴러면 날 개성에 데려다 줘!》

《챠챠, 이건 또 그 소리야? 임자도 당했지? 사이또가 내앞에서도 임자 엉칠 욕심나게 만지는걸. 내놓고 이쁜이를 바치라는것도.

난 요새 그 량반한테 젊은 계집들을 끌어다 주느라고 똥줄이 빠질 정도야. 왜인들이란 어찌나도 색을 받치는지 녀자라면 늙었든 아이든 상관 안해. 짐승도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도 야만이야?》

《말 말아.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다. 옛소, 옥팔찌야.》

《아유, 정말!》

《좋아는 한다. 내 인차 임자 몸을 금덩이로 치장시켜주겠다니.》

《입에 침바른 소린 마시와요. 헌데 뛰뛰한 소문이야. 연안성에서 흑전인지 장정인지 하는 왜장이 무졸장군이 됐다며?》

《누가 그래?》

《사공령감태기가 그럽디다. 례성에 몰려든 백정놈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기가 나서 의병을 하니까 사이또는 얼씬도 못한다고.》

《나쁜 놈의 두상태기…

후유— 기가 막힌 일이지. 사실 왜인들하고 상대를 해보니 생각하고는 영 딴판이라니까. 소리만 큰 빈달구지 같다고 할가. 글쎄 베잠뱅이들한테도 납작하게 얻어맞는다니까.》

《그렇게 김빠진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해? 령감이 연안성에 박아넣은 애꾸랑 곰서방은 몸만 내게 내버려두겠어? 빨리 리정암의 목을 따오라고 해.》

《뒈졌어.》

《뒈지다니, 누가?》

《왕눈깔이 잡혀 부는 바람에 곰서방도 애꾸도다!》

《그게 사실이야?》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